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8강 밀그림 완성... 전력질주만 남았다



훈련 마친 자들의 여유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20일 오전(현지시간) 전지훈련지인 브라질 파라나주 포즈 도 이구아수시의 아베시(ABC) 경기장에서 훈련을 마무리하고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號, 브라질 전훈 완료...미국서 3차례 평가전

“2선 공격진 합격점...받쳐줄 선수 옥석 가리겠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을 위한 최종 구상을 마쳤다. 브라질 포즈 도 이구아수시에서 가진 1주일간의 전지훈련을 마친 대표팀은 21일(이하 한국시간) 다음 전지훈련 장소인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떠났다.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초점을 맞췄던 대표팀은 훈련과 함께 26일 오전 10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코스타리카, 30일 오전 11시 샌안토니오에서 멕시코, 2월 2일 오전 7시 캄스에서 미국과 평가전을 갖는다. 홍 감독은 브라질 전훈을 통해 동메달 신화를 쓴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보여준 ‘홍명보 축구’의 틀을 유지하되, 선수 개인의 전술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베테랑의 관록을 더해 이를 한층 ‘업그레йд’ 시키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간 좁히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홍명보 축구’=공·수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 게 현대 축구의 기본 철학이다. 여기에 운동량이 많은 태극전사의 장점을 극대화한 강한 압박과 두터운 수비를 더한 ‘홍명보 축구’다. 홍 감독은 “공간을 좁게 만들고 체력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축구를 본선에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런던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지난해 브라질과 평가전 외에는 모든 경기에서 간격을 좁게 유

지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계속 꾸준히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로운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은 아니다. 상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4-2-3-1’ 전술을 고수한다. ‘제2의 전술’을 개발해 유연성을 가져야 본선 무대에서 통하지 않겠느냐는 비판 섞인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홍 감독은 현재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예를 들어 ‘4-3-3’의 경우 이를 소속팀에서 소화해 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 시간적 여유도 없어 지금 새 전술을 다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선을 그었다. <개인 전술능력 높이고 ‘관록’ 더한다=월드컵이 올림픽보다 몇 계단 수준이 높은 대회인 만큼 선수들이 더 영리하게 움직여야 하고 돌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무계주’ 역할을 할 노장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홍 감독은 특히 수비수 선수들의 움직임에 가다듬는 게 남은 기간 대표팀의 가장 큰 전술적 과제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동아시아컵과 평가전 10경기를 치르면서 수비 조직력은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홍 감독은 성에 안 차는 모양이다. 그는 “포백(4 back) 자원들이 나이가 어리고 A매치 경험이 적다. 지금보다 더 높은 경기력이 필요하다”고 털어놓으면서 “특히 본선 직전 집중적으로 포백 전술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과 선수들이 포진한 2선 공격진에는 “이미 검증이 됐다”며 일단 합격점을 줬다. 다만 홍 감독은 “2선 공격진이 다칠 것에 대비한 ‘플랜 B’는 반드시 준비해 뒀다”면서 “이들의 레벨을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누군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최근 들어 그라운드 안팎에서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줄 ‘베테랑’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젊은 선수들의 패기만큼이나 노장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전지훈련 뒤 ‘영원한 캡틴’ 박지성(에인트호번)과 만나 복귀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연합뉴스



홍명보 감독

“이라크는 결승 가는 제물”

U-22 이광중號, 오만서 내일 밤 10시 준결승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우승을 목표로 출항한 이광중(號)가 이라크를 제물 삼아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22세 이하(U-22) 챔피언십 결승에 오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광중(사진) 감독이 이끄는 U-22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 오만 무스카트의 시브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라크와 4강전을 펼친다. 한국이 2-1로 시리아를 꺾고 먼저 준결승에 안착한 가운데 이라크가 21일 일본과의 8강전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맞수가 됐다.

한국이 이라크를 꺾으면 27일 0시30분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의 4강전 승자와 결승을 펼친다. 이라크와 맞붙는 4강전은 ‘복수전’ 성격이 짙다. 이 감독은 2012년 11월 U-19 대표팀을 이끌고 출전한 2013 AFC U-19 챔피언십 결승에서 이라크와 맞붙어 1-1로 승부를 내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4-1로 이겨 짜릿한 우승을 맛봤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여름 터키에서 열린 2013 국제 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에서 이라크와 다시 만난 태극전사들은 연장 접전 끝에 승부차기로 물

수원의 명품 키커 이종민 광주 왔다

광주FC, 백민철·안중훈 영입



안중훈 백민철 이종민

수원의 명품 키커 이종민이 광주 유니폼을 입었다. 광주 FC가 21일 명품 프리키커 수비수 이종민(31·수원)과 베테랑 골키퍼 백민철(37·경남), 공격수 안중훈(25·제주)을 영입했다. 공·수에 알짜배기를 더하며 국내 선수단 1차 구성을 마무리한 광주는 브라질 출신의 특급 공격수 2명을 추가로 영입, 승격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명품 프리키를 보유한 프로 13년차의 이종민은 주로 오른쪽 윙백으로 활약하는 수비수. 뛰어난 볼키퍼 능력과 스피드를 살린 공간 침투와 예리한 크로스를 앞세워 통산 195경기에 출장해 10득점 17도움을 기록했다. 오버래핑을 즐기는 공격적인 성향과 지능적인 플레이로 광주의 오른쪽을 든든히 지켜줄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는 신들린 선방의 백민철로 수비에 무게를 더했다. 지난 시즌 경남에서 리그 21경기에 출전한 백민철은 20실점으로 골문을 막아내며, 2000년 프로에 입문 한 후 두 번째 0점대 방어율(2004년 6경기 5실점)을 기록했다. 또 몸을 사리지 않는 선방을 펼치며 팬들로부터 ‘민철신’이라는 애칭도 얻은 든든한 수문장이다. 공격수 안중훈은 지난 3년간 광주에서 활약한 수비수 김수빈과 트레이드로 광주의 새식구가 됐다. 2011년 신인 드래프트 4순위로 제주에 입단한 안중훈은 2008년 U-19 청소년대표와 2009년 대학선발로 활약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15경기(통산 17경기)에 출전해 1득점을 기록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광양에서 시작된 2차 동계훈련을 통해 광주 스타일로 재탄생하고 있다. 내달 3일에는 일본 시즈오카로 전지훈련을 떠나 본격적인 조직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PGA ‘티샷’

내일 바하마 클래식 개막

양희영·박희영 등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총상금 130만 달러)으로 2014시즌 대장정의 막을 연다. 23일부터 나흘간 미국 바하마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오션클럽 골프장(파73·664야드)에서 열릴 이번 대회에는 디펜딩 챔피언 이일희(불빅)를 비롯해 양희영(KB금융그룹), 박희영(하나금융그룹) 등 여러 한국 선수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세계랭킹 1위 박인비(KB금융그룹)가 불참하는 가운데, 2013년 상금 순위와 올해의 선수상 부문에서 박인비를 바짝 쫓았던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3년 만에 1월에 열리는 이번 개막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뉴질랜드 교포 출신의 리디아 고(17)다. 지난해 12월 대만에서 열린 KLPGA 개막전인 스윙잉 스키즈 월드레이디스 마스터스에서 프로 데뷔 2개 대회 만에 우승을 차지한 리디아 고가 LPGA 투어 첫 시즌에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리디아 고와 함께 신인으로 올해 LPGA 투어에서 활동할 이미림(우리투자증권)도 이번 대회에서 LPGA 신고식을 치른다. 박인비가 자리를 비웠으나 코리아 시스터즈의 위용은 여전하다. 지난해 생애 첫 우승을 거둔 양희영, LPGA 투어 최저타 타이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박희영 등이 한국 남자들의 시즌 첫 우승 도전에 동참한다. 최나연(SK텔레콤)은 작년 무관이었지만 상금 9위에 오르며 꾸준한 경기 운영능력을 보여줬다. 지난해 유럽 대회와 LPGA 투어에서 각각 준우승에 그친 최은정(불빅) 또한 올해 꼭 우승컵을 품에 넣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